

## ■ 군산부설초 '2025 푸른소리 어머니합창단' 발대

2025-05-01 11:29

음악 속 행복 자녀들과 함께 꿈 꾸며 활동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 어머니합창단의 발대식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합창단 지휘자 및 많은 합창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어머니합창단 발대식을 축하하며 김신철 교장은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불렀다.

군산부설초 푸른소리 어머니합창단은 합창 활동을 통해 즐거운 노래를 즐겨 부름으로써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학교 홍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도 군산부설초 푸른소리 어머니합창단 열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통해 합창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며 뮤직페스티벌 등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달 첫 주에 연습을 시작하며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학교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급식 모니터링 등 교육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신철 교장은 "어머니합창단 활동이 군산부설 예술교육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에 이바지하며 학교를 사랑하고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며 자녀들과 함께 꿈을 꾸는 의미 있고 멋진 어머니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